



살고싶은 행복도시 서구

# 서구신문

THE SEO-GU NEWS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9월 25일)



QR코드

제214호 발행 | 부산광역시 서구

news.bsseogu.go.kr

1997년 1월 23일 창간



피해 복구, 태풍처럼 빠르게! 지난 10월 5일 내습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총 66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은 태풍이 휩쓸고 간 송도구름산책로 앞 해안도로에서 서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재해쓰레기들을 치우고 있는 모습).

## 태풍 피해 총 66억, 일부 국고 지원

### 요건 안 돼 '특별재난지역' 제외... 민·관·군·경 참여 복구율 75%

지난 10월 5일 부산을 강타한 제 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35건 43억 원, 사유시설 52건 23억 원 등 총 87건 66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서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액을 공공시설 35건 80억 원, 사유시설 52건 23억 원 등 총 87건 103억 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서구 피해기준액 60억 원 이상) 선포를 건의했다. 그러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에서 공공시설 피해액이 43억 원으로 조정된 데다, 사유시설 가운데 횡집·숙박업소 등 상가시설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구는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태풍 피해액이 24억 원을 넘어서 국고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고 지원 규모는 일반적으로 피해복구 비용의 50%이며, 나머지 50%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일정 비율씩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피해복구액 총 37억 원(국가·부산시 소관시설 제외) 가운데 27억 원 정도를 국·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횡집·숙박업소 등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 등 지원책을 부산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상륙 당시 순간최대풍속이 32 m/s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했으며, 누적 강우량이 95mm에 달한데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30분 만조 수위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8m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덮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해 남항, 암남항, 감천항, 암남공원 등 해안가 지역이 침수되거나 각종 시설물들이 파손 또는 유실되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구덕문화공원 일원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구는 태풍 상륙 하루 전인 4일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당일 오전 6시30분 태풍

경보 발령과 동시에 직원 1/2 이상근무, 소관 부서별 현장점검 예찰을 실시했으며, 해안도로 침수가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주민대피 안내방송과 함께 송도아랫길(중무대로)을 전면 통제하는 등 재난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같은 발 빠른 대응덕분에 서구에서는 재산피해는 매우 컸으나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구는 5개 분야의 피해복구 대응 TF팀을 가동해 긴급 피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민·관·군·경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힘입어 10월 20일 현재 총 복구율 75%를 보이고 있다.

(문의 안전총괄과 240-4642)

<관련기사 3면>

# 부산국제비치사커대회 연다

## 10월 29~30일 송도해수욕장... 일반부·유소년부 32개팀 참가

제1회 부산국제비치사커대회가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서구 주최, 부산국제비치사커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는 일본 효고현사커협회 소속 2개팀 등 16개팀이, 유소년부는 전국 초등학교 16개

팀이 참가해 모래밭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일반부는 트로피·메달과 함께 상금(우승 300만 원)이, 유소년부는 트로피·메달과 함께 장학금(우승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편 대회기간 행사장에서는 선수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될 계획이다.

29일에는 음악과 레이저가 어우러져 연출하는 해상 멀티불꽃쇼(오후 7시)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낭만과

추억의 밤을 선사한다.

이어 30일에는 연예인축구단 초청 친선경기(오후 1시)가 마련돼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782)

### 김원근·김지아 주무관

### ‘이달의 친절직원’ 선정



김원근 주무관



김지아 주무관



사진은 지난해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전국해양스포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 노 잡을 줄 알면 누구나 참가 가능

## 10월 29일 송도해수욕장 카약 경기대회... 전날 접수 마감

“이보다 더 쉽고 재밌을 수 없다” 오는 10월 29일 송도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스포츠인 카약 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제3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송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8. 27. ~8. 28)에서 우천으로 연기됐던 Sit on 카약(2인승) 스프린트 및 카약킹, SUP(스탠드 업 패들보드) 등 3개

종목이다.

Sit on 카약 스프린트 경기는 학생부(남녀)와 일반부(남녀)로 나뉘어 왕복 300m 구간에서, 카약킹은 남자부와 혼성부로 나뉘어 왕복 2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SUP(1인승)는 학생부와 일반부(남녀)로 치러지며 경기코스는 300m이다.

이날 대회는 신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 결과 1·2·3

위에게는 상장과 메달, 시상품이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28일까지 송도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www.sekh.or.kr)나 방문, 팩스(717-2884)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카약은 노 잡을 줄만 알면 초등학생들도 쉽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해양레포츠이다. 온 가족이 오셔서 카약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781)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16:30~18:30
- 장소 : 서구청 본관 2층 무료법률상담실
- 내용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상생활 속 제반 법률문제
- 문의 : 기획감사실(240-4035) ※ 사전예약 필수

제127·128회 서구미래아카데미

■ 참가대상 : 누구나

■ 문의 : 총무과 240-4041~2

### ‘창조적 상상력을 흠뻑’



이미도

- 일시 : 11월 10일(목) 16:00~17:30
- 장소 :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 강사 : 이미도(작가, 물고기도서관 대표)
- ▷약력 : 한국의국어대 스웨덴어학 전공
- ▷저서 : 『독보적 영어책』, 『이미도의 영어 선물』 등 다수
- ▷번역 :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등 다수

### ‘심혈관 질환의 관리와 예방’



차광수

- 일시 : 11월 24일(목) 16:00~17:30
- 장소 :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 강사 : 차광수(부산대병원 부원장)
- ▷약력 :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미국 미네애플리스 심장연구재단 병원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교수

서구신문

1997년 1월 23일 창간

발행 부산광역시 서구 / 편집 문화관광과 인쇄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Tel. 051-240-4074 / Fax. 051-240-4069

서구청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왼쪽 마크를 스캔하면 서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태풍 할퀴고 간 자리, 복구 열기 후끈

## 민·관·군·경 등 3,100여 명 자원봉사 구슬땀... 빠르게 복구 중

### ■ 피해현장

제18호 태풍 '차바'가 서구를 할퀴고 지나가며 남긴 상처는 크고 깊었다.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해 남향, 암남향, 감천향, 암남공원 등 해안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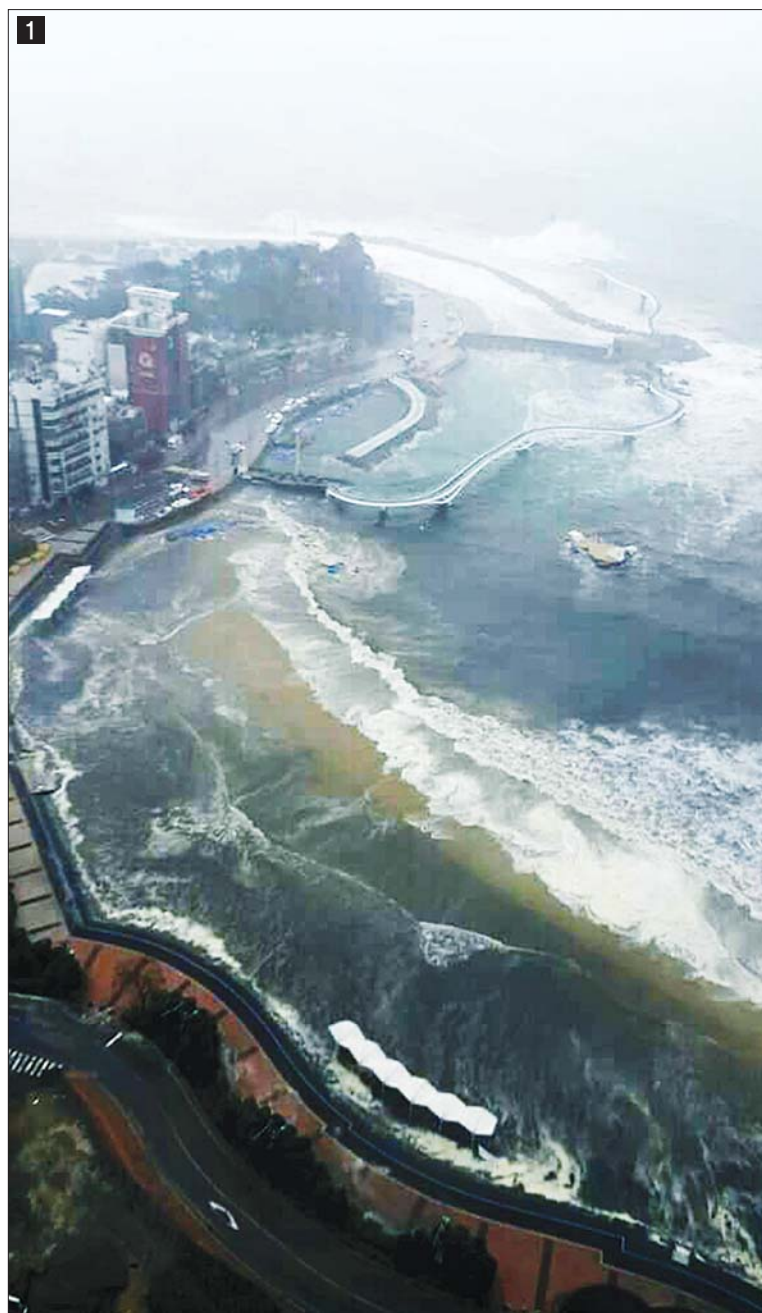
특히 송도해수욕장 일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태풍 '매미' 이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한 길이 300m, 너비 40m의 잠제(潛堤, 수중방파제)의 측면이 붕괴됐고, 조형등대인 귀신고래의 머리 부분과 무지개를 타는 돌고래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떨어져나갔다. 해수욕장의 모래 100여 톤이 유실됐고 친수공간의 화강석과 판석들이 종잇장처럼 뜯겨나갔다.

또 해수욕장 중앙의 상가들은 백사장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적었으나

동쪽의 횡집·숙박업소 등은 방파제를 넘어온 8m 이상의 너울성 파도의 직격탄을 맞아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돼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남향대교 아래 등대로 일대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아스팔트·보도블록은 물론 콘크리트 방호벽마저 유실 또는 파손됐으며, 가로등과 가로수들은 엇가락처럼 휘어지거나 뿌리째 뽑혀 넘어졌다.

거북섬 일원의 피해도 심각했다. 지난 6월 개장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각광받던 송도구름산책로는 출입문과 입구 난간이 일부 날아가버렸으며, 바닥의 목재데크는 곳곳이 찢겨나가 처참한 몰골이었다. 거북섬의 청동 어부상도 송두리째 사라졌다. 송도구름산책로는 긴급복구작업으로 부산고등어축제가 열린 지난 10월 14일부터 부분 개방되고 있다.



### ■ 복구현장

서구는 이번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민·관·군·경 등 자원봉사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나선 덕분에 빠르게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10월 5일 태풍이 물러가자마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해 삽자루를 움켜쥐고 피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직원들은 자갈밭, 빨밭으로 변모한 해안도로에서 깨진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을 모두 치웠으며, 백사장에서 친수공간을 넘어 해안도로까지 밀려나온 모래를 마대를 이용해 다시 옮겨놓았다.

다음날인 6일에는 구청 직원 뿐 아니라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자율방재단·적십자봉사회·자연보호협회 등 자생단체원과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주민, 기업체 직원, 서부경찰서 기동대, 중부소방서, 제5대대 장병들이 팔을 걷고 나서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송도상가번영회(회장

정윤규)는 이날 감사의 표시로 자원봉사자들에게 50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태풍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3천100여 명으로 굴삭기·덤프트럭 등 각종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1천700여 톤에 달하는 각종 재해쓰레기 및 폐기물을 처리했다.

한편 태풍 내습 이후 서병수 부산시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이 잇달아 서구를 현장방문해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넸다. (문의 안전총괄과 240-4642)

- 1 태풍 '차바'가 서구를 통과한 지난 10월 5일 오전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송도해수욕장 일대. 바닷물이 백사장·친수공간을 넘어 해안도로로 밀려들고 있다(사진 독자 제공).
- 2 3 태풍이 휩쓸고 간 송도해수욕장에서 제5대대 장병·적십자봉사회 회원 등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 4 침수 피해를 입은 이진종합건설 부지 뒤편 숙박업소들.
- 5 방파제를 넘어온 8m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할퀴고 간 송도구름산책로 앞 횡집들과 해안도로 모습.
- 6 난간이 유실되고 바닥의 목재데크가 뜯겨나간 송도구름산책로 입구.



# 2차 정례회 대비 연수 참여 활발

## 서구의회 의원들, 역량강화 및 소통·화합 시간 가져

오는 11월 개최하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서구의회(의장 변태환) 의원들이 자체 의정연수는 물론 대외 연수나 특강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일동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포항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첫째 날에는 최인혜 박사(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의정활동 혁신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의원들은 창의적 의정활동 전략, 올바른 김영란법의 이해와 지방의원 행동강령, 서구 조례 분석을 통한 행정권의 이양, 해외연수 활동을 통한 선진행정 이해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울릉도를 방문해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및 관광상품 판매 현황을 둘러보았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서구 특산물인 고등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에 대해 고민했으며, 서구와 울릉도의 관광마케팅 전략을 서로 비교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사진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의정연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독도를 방문해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의원들의 개별 연수와 특강 참여도 이어졌다. 허승만·이정향 의원은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기법, 예산 및 결산 심사기법 등 강의를 청취했다.

또 허승만·김영전·정진영·이석희·배은주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대전에서 우리나라 지방의정론의

권위자인 최민수 박사가 강연자로 나선 행정사무감사 1일 특강에 참석했다.

연수를 마친 뒤 의원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의원으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의정활동 실무기법을 적극 활용해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덧붙였다.

## 서구에서 하반기 첫 월례회

###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사진은 월례회에 참석한 구·군의회의장들.

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지난 9월 8일 서구청 CCTV종합관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하반기 기초의회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로 16개 구·군의회 중 서구의회에서 갖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구·군의회 의장들과 서구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월례회 개최의 건 등 의장협의회 각종 운영안건을 논의했다.

변태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의장협의회는 지난 25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자치 현장을 지키면서, 부산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서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이번 월례회가 하반기 의장협의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부산고등어축제 개막식 참석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14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9회 부산고등어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변태환 의장(사진)은 축사를 통해 "태풍 '차바'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번 축제가 개최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축제의 장에서 건강에 좋은 고등어를 마음껏 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송도해수욕장 태풍 피해 복구 동참

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난 10월 5일 송도해수욕장을 찾아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피해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 태풍으로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시설물이 침수 또는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서구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자마자 피해복구 현장에 도착해 파괴된 시설물의 파편을 치우고, 수변공원은 물론 해안도로까지 밀려든 모래를 쓸어담아 옮기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로 복구작업에 비지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해 처음 피해현장을 둘러보았을 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참담한 심정이었다. 우리 서구의 자랑인 송도해수욕장이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프며, 복구 작업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해 관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더욱 힘쓰겠다. 빠른 시일 내 복구작업이 완료되길 바라며, 태풍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송도해수욕장에서 열심히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 새·안·골 전통시장 상생대축제

〈충무동 새벽·해안·골목시장〉

## 11월 4~6일... 할인 판매에 공연·이벤트는 '담'

충무동 새벽·해안·골목시장 등 3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 육성사업단이 함께 마련하는 '가자! 싱싱생생 새·안·골 전통시장 상생대축제'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동시에 개최된다.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구본호)이 주관하는 새벽·해안시장 축제는 자갈치시장에 가려진 이들 시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상인들의 화합·상생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새벽시장에서는 특별할인판매(30~50%)가 매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깜짝 진행돼 싸게 팔기로 소문난 새벽시장의 각종 야채류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상인과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 원으로 장보고 요리하



사진은 지난해 상생대축제에서 있었던 특별할인판매 행사 모습.

기' (5일)·노래자랑(6일) 등 경연행사와 상인이 만든 영화 상영(4~6일), 작은음악회(5일),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회(4~6일)도 마련된다.

해안시장에서는 고등어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부산관광공의 고등어레시피 시연회(4일)를 비롯해 부산관광공·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이색 고등어요리 판매행사, 고등어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오면 고등어를 증정하는 이벤트(5·6일)가 진행되고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는 먹거리장터도 운영된다.

그런가 하면 충무동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단(프로젝트 매니저 김민규)이 주도하는 충무동골목시장 축제는 내년 초 고갈비특화거리 조성을 앞두고 고갈비 먹거리 부스 운영, 길거리공연,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축제의 개막식은 4일 오후 3시 새벽시장 중앙아케이드광장에서 열리며, 6일 오후 4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300여 명의 상인들이 참가하는 '새·안·골 파이팅! 화합의 퍼포먼스(전략줄다리기)'로 대미를 장식한다.

(문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244-3556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단 936-3761)

### 알기 쉬운 청탁금지법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

A. 경조사는 결혼·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하다.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고, 4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A. 음식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 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Q.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이나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 3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스패น 10m 이상인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은 1천㎡ 미만 등)의 민간 소유 건축물이다.

지방세 감면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재산세(5년간)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또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5년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안전총괄과 240-4651)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운영기간 : 2016. 9. 1. ~ 11. 30.
- 신고상당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44)200-7972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신고대상 :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등 각종 정부 보조금
- 신고자 보호·보상
  -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 문의 : 기획감사실 (240-4054)

##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 이제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주소가 대세!

-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각종 신고 시, 부동산 거래 등 공적인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 기반의 우편번호로 전면 개편(6자리 → 5자리)
- OECD 국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정도로 선진형 주소

### 도로명주소 이렇게 읽고 씁니다

- 단독주택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8번길 12(충무동)
- 다가구주택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39번길 7-3, 20호(토성동, 토성아파트)

### 여기에서 찾으세요

- 인터넷 홈페이지 : www.juso.go.kr
-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

문의 : 토지관리과 (240-4755)

## 선거법 퀴즈

문 공직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제시하는 공약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① 매니페스토 ② 에니페스토 ③ 마니아페스토 ④ 공약페스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bsseoguec@korea.kr)로 10월 31일까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11월 4일까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이메일 : bsseoguec@korea.kr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 선거법 안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서구선거관리위원회(253-1390)



사업 추진 주역들

사진은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의 중심축인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산복도로변에 위치한 천마산에코하우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민·관·학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사업계획안 마련... 국토부 관문심사 통과



### ❏ 누가 어떻게 추진하나?

지구의 환경문제가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정책도 종래의 신도시 개발보다는 지역 내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재생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역시 이같은 추세에 걸맞게 도시재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체계의 중심축은 아미·초장운영위원회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미·초장운영위원회는 현장지원센터를 비롯해 아미맘스·행복마을추진협의회 등 7개 주민협의체, 서부경찰서·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지역지원기관, 창조도시과 등 구청 행정협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위원회가 자문과 의견조정 역할을 맡고 있

다. <아래 추진체계도 참조>

이 가운데 프로젝트를 총괄·조정하는 현장지원센터는 지난 4월 아미문화학습관 1층에 문을 열었는데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사무국장·활동가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7개 주민협의체는 아미·초장동 일대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수행으로 재생사업의 역량이 함양됐으며, 지역 생활안전을 맡고 있는 서부경찰서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지원기관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

아미·초장운영위원회는 이같은 거버넌스체계를 바탕으로 우신구 센터장·윤지선 비석문화마을 대표·김성호 부구청장 등 3인 공동의장제 아래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으며, 센터장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15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차례의 관문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1차 심사에서는 거버넌스체계와 전담 구성원의 역량 등에서 사업 준비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 5월 국토교통부 R&D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의 '실증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린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학 교육과 컨설팅, 친환경 집수리 지원, 마을 육구조사와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아미·초장운영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10월 24일 아미동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 4층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으며, 오는 11월 중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등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창조도시과 240-4232)

### 성공적인 '도시재생' 을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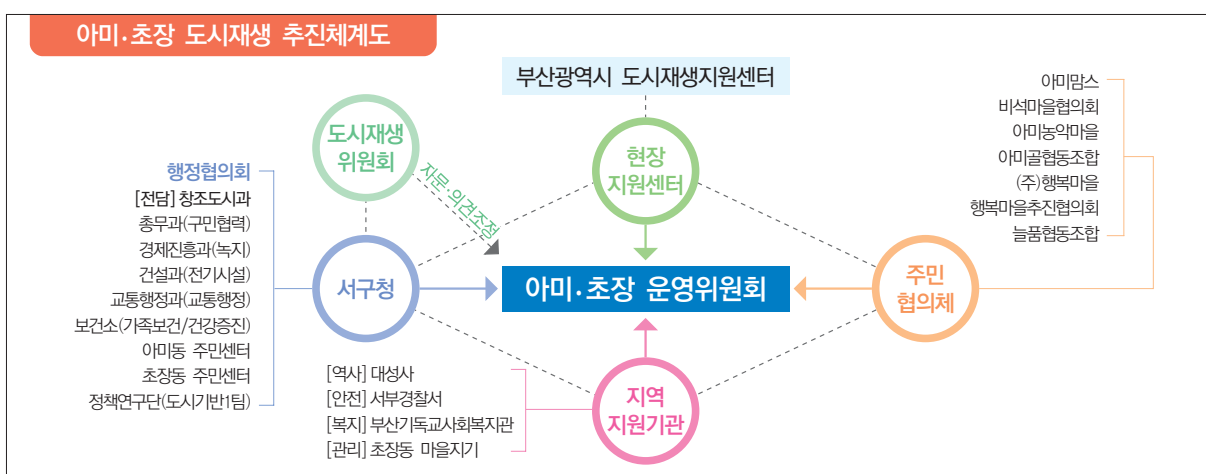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다. 부산 서구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 뿐 아니라 국토부·환경부 등과 협력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사업, 행복주택사업,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선도사업 등을 유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차집예술체험장, 아미문화학습관, 한마음 행복센터, 천마산에코하우스, 누리바라기전망대가 늘어선 천마산로를 따라 걸어가면 지난 몇 년 동안의 서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건물과 공간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기존의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살아 온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민, 지역기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의 함께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의 역사나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금씩 마을이 변화해 가기를 기대한다.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지난 10월 8일 밤 '피란수도 역사투어' 참가자들이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전망대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눈 앞에 펼쳐진 멋진 야경을 감상하고 있다.

# “살아있는 역사... 부산 대표 관광상품으로”

피란수도 Busan Heritage Night  
부산야행

10.7.(금)~8.(토)

임시수도정부청사·비석문화마을 일원

지난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임시수도정부청사(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와 비석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피란수도 부산야행' 하반기행사가 10만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구 주최, 동아대 석당박물관·서구문화원 주관, 문화재청·부산시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천으로 일주일 늦춰져 일부 행사가 취소된 데다, 행사 둘째 날 또 다시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반기행사가 이처럼 호응을 얻은 것은 상반기행사(6. 3.~6. 4.)의 성공에 힘입어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부산지방보훈청·육군 제53보병사단·UN평화기념

관·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부산 근대역사관·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영락교회 등 유관 기관·단체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고 다양해진 덕분으로 보인다.

방문객들은 “몰랐던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부산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온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실제 임시수도기념거리 등 행사장 곳곳에서는 피란수도 당시의 부산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들이 재현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방문객들은 보리개떡·주먹밥을 먹으며 피란시절의 음식을 체험했으며, 당시의 분위기를 되살린 상점·주막·점집에서 물건을 사고 막걸리를 마시고 신수점을 치는가 하면, 무명 차마·저고리와 교복·교련복 등 추억의 의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육군 제53보병사단이 마련한 행사는 관심을 집중시켰다. 군용물품 전시회에는 90mm 무반동총·60mm 박격포·기관총·권총 등 총기류와 통신장비가 선보였으며, 임시수도정부청사 앞에 배치된 K-311A1 5/4톤 트럭과 K-311 1/4톤 트럭 등 군용차량과 군용천막은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다.

사격체험은 준비했던 탄환이 소진돼 일찌감치 행사가 종료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피란수도 역사투어는 가족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참가자들은 피란민들이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비석문화마을에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실감했으며, 산복도로에서 바

라본 부산항 일대의 멋진 야경에는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산야행 4행시 공모·전시와 종군기자와 함께 추억 만들기 등 특별이벤트, 렉처콘서트 '피란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공연, 과라코드 팔찌 만들기·검정고무신 꾸미기 등 체험행사도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064)

### 피란수도 부산야행 참가기

#### 서구의 역사·가치 알려 보람

나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피란수도 부산야행'에 참여했다. 문화해설사로 '피란수도 역사투어'의 A코스 해설을 맡은 것이다.

행사 둘째 날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고 투어를 했지만 전혀 불편해 하지 않았다.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바로 앞까지 모여드는 열정을 보였다.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 귀를 쫓긋하며 들을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문화해설사로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서구의 역사와 가치를 들려준다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다. 특히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굳게 서는 우리나라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과 자부심도 컸다. '피란수도 부산야행'은 내게도 많은 감동을 주었다.



장혜봉 명예기자·문화해설사



피란시절 거리 재현



피란시절 음식 체험



검정고무신 꾸미기



군용물품 전시회

# 제9회 부산고등어축제

## 10.14.(금)~16.(일)

송도해수욕장·부산공동어시장 일원

제9회 부산고등어축제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송도해수욕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일원에서 서구·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주최, 서구문화원 주관, 해양수산부·부산시 등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고등어 미세먼지 주범 논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태풍 '차바' 내습, 게다가 행사 마지막 날 하루 종일 비까지 내리는 잇단 악재 속에서도 46만 명이 몰려 '국민생선' 고등어의 저력을 느끼게 했다.

### 뭣이 중한 다... '지역경제 살리자'

○...태풍 '차바'로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한때 축제 연기가 검도되기도 했다. 태풍으로 주변 횡집과 숙박업소 등 상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있는 마당에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범 논란과 콜레라 발생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되는 부산고등어축제마저 열리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어 어려운 지역 수산인과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행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서구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태풍 피해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불꽃쇼와 '수산인 거리 퍼레이드' 등 요란하게 비취질 수 있는 행사는 과감하게 취소했다.

### '국민생선' 고등어, '역울한 누명을 벗겨라'

○...주최 측이 이번 축제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미세먼지 주범 논란 등 왜곡된 정보로 인한 고등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국민생선' 고등어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창작뮤지컬 '고등어



올해 개최된 부산고등어축제 현장.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맨손으로 고등어잡기', 먹거리한마당, 가두리 고등어 낚시체험행사서 잠은 고등어를 보며 기뻐하는 참가자들 모습.

## “ ‘미세먼지’ 개의치 않아요”... 고등어 인기 짱짱

### 태풍 이어 우천... 잇단 악재 불구하고 46만 명 몰려 “맛있는 축제”

스트를 무대에 올려 누명을 쓴 고등어의 억울함을 춤과 노래로 풀어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해 지난 9월 말 고등어의 시료를 채취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비브리올라 콜레라 불검출 판정이 나오자 즉각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호응을 얻었다.

### 역시 손맛... 맨손으로 고등어잡기 인기

○...올해 축제는 행사의 주제에 걸맞게 고등어 관련 체험 및 참여행사를 대폭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

우선 부산고등어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맨손으로 고등어잡기'는 총 6회 진행됐는데 매회 신청자 행렬이 길게 이어

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에는 부모들도 체험에 나서 짜릿한 손맛을 만끽했다. '고등어맨 종이배 경주대회'와 올해 처음 선보인 '카약 타고 보물(고등어) 찾기'는 예약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관심을 모았는데 '고등어맨 종이배 경주대회'는 아침부터 비가 내려 상당수 참가자가 예약취소를 하는 바람에 만반의 준비를 했던 주최 측을 허탈하게 했다.

### 미세먼지·콜레라? 고등어회는 품질!

○...부산고등어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고등어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맛볼 수 있다는 점으로 방문객들은 부산고등어축제 현장이 아니면 구경

조차 하기 힘든, 고등어회와 고등어탕수육 등 이색 고등어요리를 맛보았다. 특히 고등어회는 큰 인기를 끌어 들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매진을 기록해 콜레라 발생으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 방에 씻어냈다.

경남 통영에서 왔다는 김모씨는 "고등어회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과는 달리 비리지 않고 쫄깃하니 맛있다. 두 접시짜다."고 말하면서 "미세먼지 같은 것은 개의치 않는다. 굳이 미세먼지를 논하자면 고등어보다는 육고기 쪽이 더 많을 듯 한데 왜 고등어가 논란이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 "가성비 최고!" 부산공동어시장 체험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진행

된 '체험! 삶의 현장 부산공동어시장'은 일찌감치 예약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다.

참가자들은 경매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매체험행사에 참가했으며, 낙찰 받은 수산물세트를 선물로 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맛있게 소문난 부산공동어시장 구내식당에서 고등어구이·고등어찜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1인당 3천 원의 참가비로 10배가 넘는 혜택을 누리자 참가자들은 "가성비 최고!"라며 대단족을 표시했다.

박선옥 씨(북구 구포동)는 "지인의 권유로 가족들과 참여했는데 경매체험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내년엔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전자경매방식으로 바뀌어 행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 고등어 깜짝경매잔치 뜨거운 열기에 '깜짝'

○...하루 두 차례 중앙분수광장에서 진행됐던 고등어 깜짝경매잔치는 참여 열기로 뜨거웠다.

경매사가 딸랑딸랑 종을 흔든 뒤 걸쭉한 목소리로 이른바 '노래'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손가락을 폈다 잡았다 하며 행사에 참가해 제법 경매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깜짝경매에 참가해 고등어 두 박스를 낙찰받은 김제현 씨(부산진구 부암동)는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켜주기 위해 왔다가 고등어경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 2만5천 원 상당의 고등어를 1만 원과 1만2천500원에 낙찰받았다. 한 박스는 부모님 갖다드릴 것이다."라며 즐거워했다.

### 특별기고

## 고등어를 위하여

예로부터 우리 연근해에서 많이 어획됐던 고등어는 소득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풍요시대의 지금은 웰빙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민생선이다. 실제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순환기계통의 성인병(동맥경화·뇌졸중·심장병 등) 예방, 암 발생 억제, 당뇨병 및 치매 예방, 머리를 좋게 하고 팔다공증 및 빈혈 예방 등의 다양한 생리적인 기능이 있는 최고의 웰빙 수산식품이다. 그러나 고등어는 '살아있어도 썩는 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도 저하가 대단히 빨라서 비린 냄새가 나고, 뼈가 목에 걸리는 등의 문제점을 때문에 특히 젊은층들이 꺼려할 뿐만 아니라 가공원료로서의 적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갖고 있다.

고등어 가공품의 대표주자인 간고등어는 저온시설이 없었던 옛날(냉장고가 실용화된 역사는 약 100년 정도이다)에 일시에 많이 어획된 고등어를 썩지 않게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소금(약 20%)과 섞어서 보관하는 단순가공법인 간고등어산업으로 발전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도 고등어 가공품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도 유감스럽게 내륙지방인 안동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국이니 부산의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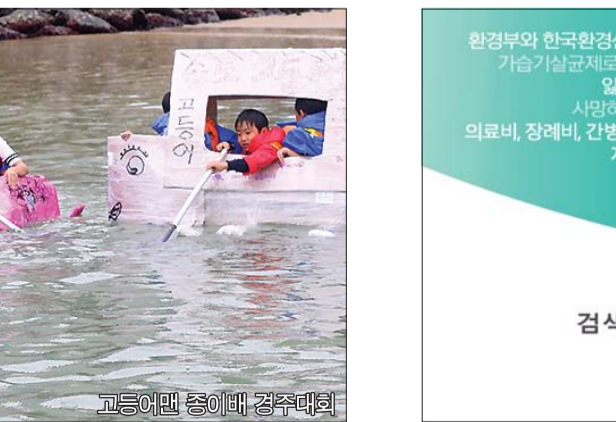
일본에는 고등어와 소금을 혼합하는 간고등어산업 대신에 식초(食醋)에 고등어를 절이는 초절임고등어산업이 발전돼 있다. 일본과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우리는 간고등어산업, 일본은 초절임고등어산업으로 다르게 발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초밥을 많이 먹는 초밥문화로 짠 간고등어를 초밥 덮개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초에 절이는 초절임고등어산업으로 발전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고등어 양육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등어 대표도시이다. 부산시는 2011년 고등어를 시어(市魚)로 지정했고, 서구에서는 2008년부터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매년 가을 고등어축제를 열고 있다. 그리고 내년 부터는 고등어사업단을 유치해 고등어산업을 부산을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등어산업을 발전시켜야 할까? 첫째, 고등어의 단점인 비린내를 없애고 뼈가 목에 걸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공법 개발로 젊은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온시설이 없었던 시대에 보관의 목적으로 개발된 간고등어산업에 대신할 새로운 고등어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송도 앞바다나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육상에 고등어양식장을 만들어서 부산의 대표음식인 생선회로 공급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과학이 동반되는 새로운 고등어가공품을 개발하고 대비해야 기우로 판정된 '고등어 미세먼지 주범 논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고등어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등어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조영제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가슴기살균제로 인하여 폐기물을 일으키는 분이나 사망자 발생 시 유족에게 의료비, 장례비, 간병비 및 생활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슴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표전화 02. 380. 0575

검색창에서 **가슴기살균제 피해**를 검색하세요!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약자지킴 평생학습 동아리 세미나



서구는 지난 10월 17일 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3회 서구 약자지킴 평생학습 동아리 세미나를 동아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청특강, 동아리 사례발표 등으로 마련했다.

찾아가는 종합복지상담센터 운영



서구는 지난 9월 20일 부산기독교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11개 전문상담분야를 갖춘 종합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백년송도 골목상권 사업단, 선진지 견학



암남동 백년송도 골목상권 육성사업단(단장 우문호)은 지난 10월 11일 광주 송정역시장 1913거리를 방문해 향후 백년송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기회를 가졌다.

서구종합복지관, 노인 성 인식개선 연극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월 23일 문화활동의 기회가 적은 주민 50여 명을 초청해 노인 성 인식개선을 위한 화정종합사회복지관 화정실버공연단의 연극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서대신1동, 하반기 바리스타 수업 개강



서대신1동 마을기업인 고분도리협동조합(이사장 권영진)은 지난 9월 28일 주민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주 동안 운영되는 2016년 하반기 하늘아래바리스타 11기 수업 개강식을 가졌다.

2016년 희망복지 워크숍 개최



서구는 지난 9월 28일 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공공 및 민간 복지실무자, 희망나래단 등 1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복동 사업과 함께 하는 2016년 희망복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용마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전홍범)은 지난 9월 27일 경남고 교정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남중·고 출신 424명(전사자 33명)의 호국영웅의 이름을 새긴 명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서구보건소,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서구보건소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를 감소를 위해 상반기 초등학교 5~6학년생에 이어 지난 9월 26일 서여자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동대신2동, 어린이 독서골든벨대회 개최



동대신2동 새마을문고회(회장 한영숙)는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함양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초등학생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도전! 어린이 독서골든벨대회를 개최했다.

서대신3동, 한새마을 문화데이트 운영



서대신3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양창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에 마련하는 '한새마을 문화데이트'의 일환으로 9월 28일 바리스타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만원의 메아리', 저소득아동 장학금



(사)아름다운 실천 만원의 메아리(회장 김선진)는 지난 10월 10일 서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아동 20명에게 전액달라며 장학금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새벽·해안시장 사업단, 어린이 사생대회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구분호)은 10월 8일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사생대회를 개최했으며, 대상(부산시장장)은 최시영 양(양정초 2년)이 수상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재난대응요령 교육



서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명희)는 지난 9월 30일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우수 자원봉사지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종 재난대응요령 등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동대신3동, 밀반찬 나눔행사 마련



동대신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경희)는 지난 9월 28일 관내 어르신 30명에게 계란, 미역, 감자 등으로 사랑의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서대신4동 행복마을, 수제청 만들기



서대신4동 행복마을추진협의회(회장 강대영)는 지난 9월 23일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절과일(청귤)을 이용해 수제청 50병(1병 500g)을 만드는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서대신1동 고분도리건강나누리센터 개관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 “주민 건강·소통 책임질게요”

## 서대신1동에 고분도리건강나누리센터 문 열어

서대신1동 고분도리마을에 주민 건강증진과 소통·화합의 장이 될 고분도리건강나누리센터가 건립돼 지난 9월 30일 개관식을 가졌다.

고분도리마을은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8통과 9통 일원으로 서대신1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인근에 여가 및 문화공간이 없는데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서대신6·7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마을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용철)가 신청한 행정자치부의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

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건강나누리센터는 국비와 시·구비를 포함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돋이로378번길 42 구유지에 대지 117㎡, 연면적 84.64㎡,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는데 1·2층에는 안마의자·러닝머신·벨트마사지 등 총 19종의 헬스기구를, 옥상에는 상자텃밭 10개를 각각 설치해놓았다.

건강나누리센터는 고분도리건강나누리주민협의회(회장 장종구)가 맡아 월~금요일에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주민들의 체력단련장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앞으로 동아대학교 체육학과나 서구 관내 헬스클럽 등과의 재능기부협약을 통해 각종 건강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옥상텃밭에서는 유기농채소를 재배해 저소득층 밀반찬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문의 서대신1동 240-6465)

##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받으세요

서구는 세금과 관련해 궁금증이나 고충사항이 있지만 비용문제로 전문가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 마을세무사에는 현재 강홍팔·김정옥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실시하며, 부족한 경우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2차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단, 보유재산 5억 원 이상, 종합소득(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세무과 240-4182)

### ■서구 마을세무사

세무사 이름	전화 번호	팩스 번호
강홍팔	254-0814	244-1715
김정옥	246-2271	980-5012

### ■무료 영화상영 안내

영화 제목	상영 일시	상영 장소	문의
암살	10. 26. (수) 15 : 00	서구노인복지관	240-3541~5
번호인	10. 26. (수) 14 : 30	부민노인복지관	240-3532

## 부민동, 가을초화로 골목길 가꾸기



부민동은 지난 9월 22일 임시수도기념관과 주민센터 일원에서 직원,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새마을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가해 가을초화 등으로 골목길 가꾸기사업을 실시했다.

## 남부민1동 보장협의체, 치킨 지원사업



남부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사홍)는 지난 9월 22일 관내 처갓집양념통닭(대표 김희익)과 매월 관내 저소득가정에 치킨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 초장동 보장협의체, 집수리 재능기부



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은숙) 위원들은 지난 10월 7~8일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저소득 가정 2세대에서 도배·장판 등 집수리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 한전산업개발 중부산지점, 백미 기탁



한전산업개발 중부산지점(지점장 윤봉길)은 노인의 달을 맞아 홀몸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백미 10kg 30포를 남부민2동에 전달했다.

## 총무동 7개 단체, 마을의제 추진 협약



총무동주민자치회, 새벽·해안·골목시장 상인회 등 총무동 관내 7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10월 6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의제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 암남동 자율방재단, 사랑의 집수리



암남동 자율방재단(단장 박영근)은 센트럴라이온스클럽의 후원을 받아 지난 9월 22일과 23일 이틀간 관내 저소득가정 2세대에서 도배·장판·도색 등 사랑의 집수리활동을 펼쳤다.

**동대신2동 제3회 닥밭골 행복마을 골목축제 11월 11~13일**

제3회 닥밭골 행복마을 골목축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주간에는 닥밭골 그린테마공원 일원에서 골목축제로, 야간에는 원도심 4개구의 네트워크형 축제인 부산골목길축제와 연계해 삼익상가 및 구덕운동장 상가 일원에서 빛문화축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동대신2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이응춘)가 주최하는 닥밭골 행복마을 골목축제는 11일 오전 11시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OX퀴즈, 전통놀이한마당, 주민노래자랑 등이 잇달아 펼쳐진다. 12일 낮 12시에는 마을과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린다.

또 행사기간 인디밴드 등이 출연하는 골목공연을 비롯해 닥종이인형 전시와 닥밭골 옛 모습 사진 전시 등 전시행사, 주민해설사와 함께하는 닥밭골 마을탐방, 닥종이공예 체험존 운영, 우드아트·서예 등 문화아트체험, 주민들이 제작한 문화아트 프리마켓, 먹거리장터 등이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해 서구문화원 청춘난타팀의 공연 모습.

서구가 주최하는 닥밭골 빛문화축제는 환상적인 루미나리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제기간 삼익상가 및 구덕운동장 상가 일원에는 화려한 빛조형물과 청사초롱이 불을 밝힌 가운데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포토존이 운영된다. 삼익상가 음식점에서는 10% 할인판매 행사도 실시한다.

루미나리에는 11일 오후 6시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문의 동대신2동 240-6431)



**부민동 제2회 부민동 마을축제 11월 8일**

제2회 부민동 마을축제는 '역사·문화, 젊음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40분부터 임시수도기념관 주차장 일원에서 부민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이재선)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정부청사 및 대통령관저가 위치했고, 현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여행사, 전시행사, 특별공연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통하다!'라는 콘셉트로 임시수도기념관·동아대 석당박물관 등 근대역사 탐방투어를 실시한 뒤 '부민동 마을의 역사를 찾아라! 도전골든벨'을 펼친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인 대상 근대역사 탐방투어도 진행되고, 나라사랑 그림전시회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와 통하다!'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고(故) 한형석 선생 및 자유아동극장 관련 사진과 소품으로 마련하는 전시회, 주민자치회 및 평생교육원 프로



사진은 지난해 동아대학교 재능기부 동아리의 공연 모습.

그램 발표회, 벨리댄스 공연, 코미디 저글링 쇼 등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젊음과 통하다!'에서는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 공연, 동아대 재능기부 동아리 공연, 각 특별 노래경연인 동민화합마당이 펼쳐진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먹거리장터와 이웃사랑 나눔바자회, 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흥겨운 축제분위기를 북돋운다. (문의 부민동 240-6528)

**천마산에코하우스 '베스트 어워드'**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 부문**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부산국제건축대전 시상식 모습.

초장동 소재 천마산에코하우스가 제32회 부산국제건축대전에서 완공건축물부문 베스트어워드를 수상했다. 완공건축물 부문은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 및 준공 완료된 건축물 가운데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것으로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한다.

지난 10월 17일 시상식에서 천마산에코하우스 건축주인 서구청은 건축물에 영구부착할 수 있는 동판 명패를, 시공사인 서원건축사사무소 조서영 대표는 상패를 받았다. (문의 창조도시과 240-4232)

**11월 17일 수능 교통대책 마련**

**불법주차 단속·수험생 무료수송**

서구는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험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따로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날 서구에서는 총 1천500여 명이 경남고·부경고·부산서여고 등 3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에 따라 서구는 3개조 20명의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경찰·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자가용·택시 등 각종 차량의 시험장 진입 금지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험장 주변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순찰차량 3대와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2대를 충무동교차로·동대신교차로·서대신교차로 등 3곳에 대기시켜 수험생을 무료수송할 계획이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52)

**여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 폭력	가정 폭력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전액(300만 원 한도내) 해바라기센터, 전담 의료기관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300만 원 한도내) 전담 의료기관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국선변호사를 통한 무료 변호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기타	진술조력인제도	상담지원(1366), 긴급지원(생계유지비), 쉼터 입소(6개월), 임대주택 지원, 자립지원(취업연계직업훈련 등)

- 여성·아동폭력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366
- 통합상담 : 부산해바라기센터(1899-3075),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501-9117)
- 성매매피해상담 : 살림상담소(257-8297), 꿈아리상담소(817-8297)

**12월 구민 정보화교육(초급) 안내**

프로그램명	운영기간(시간)	대 상	신청기간
한글문서 기초 예쁜 문서 만들기	11. 21. ~12. 2. 10:00~12:00	일반 (만 59세 이하)	10. 24. ~
인터넷 활용 민원24 활용	11. 21. ~12. 2. 13:00~15:00	일반 (만 59세 이하)	11. 11.
엑셀 기초 가계부 만들기	11. 21. ~12. 2. 15:30~17:30	어르신 (만 60세 이상)	

- 교육장소 : 서구 전산교육장(본관 1층)
- 신청 방법 : 전화(240-4301) 온라인(홈페이지 bsseogu.go.kr) 신청
- 대상자 선정 : 서구민 > 이전 교육 불참자 제외 > 교육대상 > 신규자 > 연장자
- 문의 : 기획감사실(240-4301)

# 구민생활체육대회 10월 30일

##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생활체육 6개 종목 겨뤘

2016년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덕운동장 주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구 주최, 서구체육회·서구 종목별 협회 주관으로 축구·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탁구·족구 등 6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태권도대회는 지난 7월 16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대회는 종목별 협회 주관으로 축구는 구덕운동

장, 배드민턴은 부산여중, 테니스는 압남공원테니스장 등 4개소, 게이트볼은 송도초등학교 운동장, 탁구는 송도스포츠센터, 족구는 구덕살내체육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날 대회 결과 각 종목별로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상장 또는 트로피가 주어진다.

한편 개회식은 오전 9시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781)

# 남일이네 찾아가는 복지교실

## 10월 한 달간 노인문제 중심 운영



남부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사홍)는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인 다복동사업의 일환으로 협의체 관계자, 희망나래단, 주민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문제를 주제로 한 '희망충전소-남일이네 찾아가는 복지교실(사진)'을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인권의 이해 및 침해 사례, 노인 학대의 정의와 유형, 예방 및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부산은행에서 노인 대상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등을 각각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에는 보건소의 노인치매 예방 및 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남부민1동 240-6612)

# 저소득가정에 태양광에너지 지원

## 71가구에 사랑의 햇빛나눔사업... "에너지복지 실현"

전기료도 내기 버거운 저소득가정에 태양광에너지를 무상 지원하는 '사랑의 햇빛나눔사업'이 부산에서는 서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구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시범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낮아 전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관내 자가 저소득가정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저소득가정 71가구를 사업 추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들에게는 가구당 500만 원씩이 지원돼 2kW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다.

서구는 설비 가동시간이 하루 평균 4~6시간 정도인 만큼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가정은 기본요금 정도만 내면 부담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



사진은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한 주택의 모습.

며, 3만~4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의 경우 비용부담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설비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경제진흥과 240-4472)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 11월 2~4일 누구나 무료 참여

서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구청 신관 2층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사회적기업연구원(원장 조영복)이 운영을 맡아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 특강, 우수 사회적기업 견학 및 체험, 팀 빌딩 & 사회문제의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창업 및 경영실무 통합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나 관련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사회적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rise.or.kr)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이메일(sg@rise.or.kr)이나 팩스(050-4926-0028)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 생활지원과 240-668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고,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 2012년~2030년

■사업 목표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 및 스마트 지적의 완성

■사업 시행자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토지관리과장)

■기대 효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집니다

-사업에 따른 측량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종 개발 시 측량이 필요 없어 측량비용이 절감됩니다

■문의 : 토지관리과(240-4771~4)

### 2016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기간 : 2016. 10. 24.(월)~10. 28.(금)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이고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개

■접종비 : 본인 부담 5,000원/두(동물등록건 3,000원/두)  
☞ 동물등록건의 경우 등록증 지참 시 시술비(2,000원/두) 지원

■시술자 : 관내 개업수의사 5명

■동별 세부 일정

동이름	접종일	접종 시간	접종 장소
동대신 1·2·3동	10. 24. (월)	9:30~10:30	동대신1동 주민센터
		10:50~11:50	동대신2동 주민센터
서대신 1·3·4동	10. 25. (화)	9:30~10:30	서대신1동 주민센터
		10:50~11:50	서대신4동 주민센터
부민동	10. 26. (수)	9:30~10:30	부민동 주민센터
남부민1동, 충무동	10. 27. (목)	9:30~10:30	남부민1동 주민센터
남부민2동		10:50~11:50	남부민2동 주민센터
암남동	10. 28. (금)	9:30~10:30	암남동 주민센터
초장동		10:50~11:50	초장동 주민센터
아미동		10:50~11:50	아미동 주민센터

※ 당일 해당 동에서 접종을 하지 못한 주민은 인근 동에서 접종 가능

■문의 : 경제진흥과(240-4504)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시일 : 2016. 10. 31.

-공시내용 : 2016. 7. 1.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당 가격

-열람 : 서구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16. 10. 31.~11. 29.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처 : 서구청 토지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문의 : 토지관리과(240-4752, 4757)

♥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대상 수상작

## 서준이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응애~”

지난 2월 24일 태어난 서준이(가명)는 내가 본 아이 중에 조금 특별한 아이이다.

서준이 아빠 김서진 씨(가명)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서준이 엄마 이지아 씨(가명)는 친정어머니의 정신질환이 대물림된 탓인지 숫자도 제대로 못 셀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려 결혼을 했지만 결과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경제관념도, 근로능력도 없었으니 소득활동이 전혀 없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노숙생활을 하기도 했다.

서준이네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동대신1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엄동설한에 태어난 지 이틀된 아기를 걸싸개도 없이 내복만 입힌 채 안고 왔던 서준이 엄마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아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도 어려운 서준이네를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준이네에는 먼저 자녀양육이 어려운 장애인부부에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양육자상담이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아동종합보호센터 아이사랑콜과 연계해 어린 서준이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서구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월 1

회 부모교육, 월 2회 우유 등 물품지원을 통해 서준이 케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서준이네의 어려움이 알려지자 분유·기저귀 등 육아용품의 후원 연계가 이루어져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었다. 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에서 13만 원 상당의 분유를, 영우회 후원회에서 10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남부민1동 주민센터에서 영유아용품(아기띠·속싸개·젓병·아기옷) 등을 지원해 주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 서준이네의 후원은 계속돼 익명의 독지가가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멘토링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들이 있다고 해서 서준이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장애인부부에게는 아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직 첫 돌도 되지 않은 서준이가 장애 없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서준이 엄마·아빠가 서준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할 듯 하다.

“서준아~”

서준이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한결 가볍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늘 환하게 잘 웃는 서준이 아빠의 얼굴에 오늘날 미소가 가득하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변치 않기를 바란다.



김순이  
동대신1동 복지통장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6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에서 민관협력으로 도움 준 사례 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김순이 씨(동대신1동 복지통장)의 수기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만 65세 이상... 건강·소득 기준 고려

서구는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건강 및 소득기준이 적합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B이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라야 한다.

또 단기가사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인 부부 노인가구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단기돌봄이 필요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제공 서비스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는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이며, 주간보호서비스는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작업·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등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4371)

## 국세 관련 증명서 13종

무인민원발급창구 즉시 발급

지난 9월 30일부터 구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 3동 민원실, 동아대학교병원 본관 민원실, 부산대학교병원 A동 민원실 등 서구 관내 4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국세 관련 증명서 13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3종 가운데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3종은 24시간, 나머지 증명서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민원봉사과 240-4265)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꼭 문의하세요!

○부산시와 서구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서의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해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문의 : 서구청 생활지원과(240-4322)  
서구지역자활센터(253-1957)

○서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서구 거주 저소득 주민(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에게 가구별 1천만 원(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내 연 3%의 이자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문의 : 서구청 생활지원과(240-432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인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지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의 등급판정

■기존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신청 방법 : 방문, 팩스(801-4395), 우편, 인터넷

■문의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부운영센터(240-6180)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 2016 서구 복지박람회

11.05 토 10:00~16:00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광장 일원

- 1부
  - 오픈닝 공연 미러바, 오페라 컴패니 공연
  - 기념식
  - 유공자 표창
- 2부
  - 개막퍼포먼스
  - 사회복지 유관 기관 홍보 및 체험
  - 복지스타 개사가요제
  - 재능기부공연

난타(서구문화원), 서풀이리(서구노인복지관), 육인음악합창(동아대학교 재능기부동아리 리더), 스트리트댄스(동아대학교 재능기부동아리 가라몬), 기관 역사 갤러리, 박람회 참여자 경품 추첨

주최: 부산광역시 서구, 주관: 부산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식탁서 나트륨 양 줄이세요

## WHO 권장량 1.9배... 고혈압 등 질병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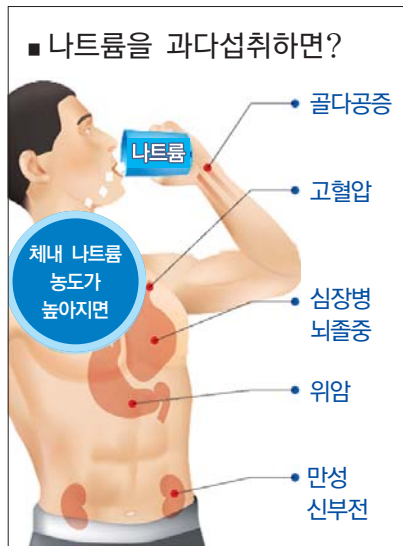
음식의 기본은 '간'이다. '간'의 정도에 따라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 대번에 판가름 난다. '간'을 맞출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소금인데, 문제는 소금의 40%를 차지하는 나트륨이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이나 체액 등 수분량을 조절하는 필수요소이기지만 과다섭취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른쪽 그림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천89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 2천mg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가정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어 심심한 맛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급식에서는 짠 음식을 적게 담고, 특히 절임식품, 양념, 소스 등 적게 담아 적게 먹도록 한다.

외식에서는 국물 등 식사량을 줄여도 나트륨 섭취량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



고, 케첩이나 머스터드소스 등은 적게 먹도록 한다. 주문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신선한 과일·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

가공식품 구매 시에는 식품 뒷면 혹은 옆면에 있는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환경위생과 240-4411)

# 30초 이상 손 씻기, 감염병 예방

지난 10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이었다. 각종 감염으로 인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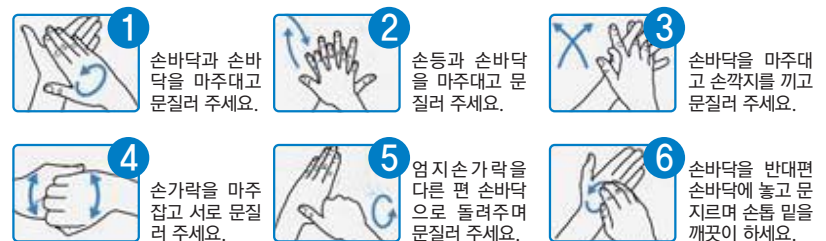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는 이날을 맞아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를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손 씻기 실태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손 씻기의 실천이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질병예방 긍정적 효과 인지도 90.9%),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실천은 41.1%, 국민 10명 중 약 4명만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는 수인성 감염병,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감염병을 약 50~70%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수칙이라고 밝히면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물로만 씻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4854)

## 올바른 손 씻기 요령



## 건강칼럼 고혈압과 신장질환



정 유 진  
신장내과 과장

고혈압과 신장질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장질환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진행된 고혈압의 결과이기도 하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분류한다. 본태성 고혈

압은 고혈압의 90~95% 정도를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상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차성 고혈압은 신장질환이나 혈관질환, 내분비계 이상에 의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이다. 고혈압은 진행 과정에서 혈관까지 나쁘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면 신장의 모세혈관에 경화를 일으켜 '고혈압성 신장병'이 생기게 된다.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투석치료를 이식을 요하는 말기신부전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다. 고혈압과 신장질환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신장의 역할은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인

데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소변의 농축이 저하돼 야간에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야간뇨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의 역할 중 하나인 적혈구를 생성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빈혈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 현미경적 혈뇨,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는 등의 이상 소견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 신장질환을 동반한 고혈압의 치료 목적은 일차적으로 혈압 조절

에 있다. 두 번째로는 심혈관 합병증 예방 그리고 신기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규칙적 약물복용이 가장 중요하다. 신장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목표혈압은 130/80mmHg 이하로 유지하고 특히 단백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혈압 조절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혈압조절 외에도 심혈관 합병증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저염 식습관, 표준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 적절한 음주,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등의 생활습관 개선과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료광고>

www.okmat119.com

# 옥 매트 119

## 판 매 수리전문

- ※ 열선·조절기·돌침대 A/S, 천갈이
- ※ 전자파 차단·신제품 공장 직판, 주문제작
- ※ 수리전문점에서 A/S 걱정없이 구매하세요



출장수리전문 ☎243-5119 010-4577-8082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결핵! 부산 결핵환자 연간 3,046명

무료 결핵 검사 서구보건소 결핵실 ☎240-4867



# 저소득 중·장년 일자리 창출하라

##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 추진으로 고용 불안 해소

서구가 취업에 취약한 저소득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해운 및 조선업종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우선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관광공원 환경정비사업 △구덕야영장 시설물 관리정비사업 △모험 보물의 숲 놀이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가로수 화단관리사업 등 총 10개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서구는 국·시비 등 3억1천800만 원을 투입해 하루 111명, 연인원 4천329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해운 및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공원 및 놀이시설의 관광자원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9일 노사발전재단 산하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김경량)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앞으로 부산중장년



사진은 지난 9월 29일 서구청과 노사발전재단 간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40~60대 중·장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정보 교환, 중·장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 고용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6682)

### 2016년 서구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 2016. 10. 26. (수) 14:00~17:00
  - 장소 : 서구청 신관 4층 다목적홀
  - 주최 : 부산광역시 서구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요 내용 : 구인·구직자간 현장 면접 및 채용, 면접 컨설팅, 직업훈련 안내 등
  - 문의 : 서구청 생활지원과 취업정보센터 (전화 240-6686~7, 팩스 240-6689)
-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빠르고 확실한 서구신문 광고

- 장기계약 할인혜택
- 12개월 계약시 : 30%
- 6개월 계약시 : 20%
- 3개월 계약시 : 10%

■ 광고문의 : 문화관광과 240-4074

### 일.자.리.정.보 (www.bsseogu.go.kr)

(2016. 10. 14. 기준)

사업장명	근무지	모집직종	인원	학력	시간	임금
조이부원 종합주방	동대신동	병동차 운전 및 관리	1	학력 무관	08:00 ~ 18:00	월급 200만 원
윤코퍼레이션	동대신동	병원청소원	2	학력 무관	06:00 ~ 16:00	월급 125만 원
청정부페정식	서대신동	한식조리사	1	학력 무관	04:00 ~ 14:00	월급 250만 원
파알유통	남부민동	수산물 가공업	2	학력 무관	08:30 ~ 18:00	월급 140만 원
삼성수산	남부민동	납품 및 단순작업	2	학력 무관	05:00 ~ 17:30	월급 200만 원
송도 노인복지센터	암남동	재가 요양보호사	1	학력 무관	13:00 ~ 16:00	시급 7,325원
동해식품	암남동	수산물 가공원	3	학력 무관	08:30 ~ 17:30	시급 6,200원
서구 한빛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구 관내	장애인활동 보조원	5	학력 무관	유동적 근무	시급 6,840원
중앙도자기	남부민동	배송납품원	1	종졸 이상	08:40 ~ 18:00	월 160만 원
엠에스	암남동	수산물 가공원	2	학력 무관	08:30 ~ 18:00	월 150만 원
선하요양병원	부민동	요양보호사	3	학력 무관	12시간 (2교대 근무)	월 160만 원

※ 게재 중 모집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취업정보센터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민들을 돕고 사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곳으로 유용한 정보와 취업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구인, 구직이 가능하도록 무료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치 : 부산서구청 서관동 4층
- 전화 : 051-240-6686~7 (FAX. 240-6689)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 기간 : 2015. 8. 1. ~ 2016. 7. 31. (후납제)
- 납부의무자 : 2016.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6. 10. 16 ~ 10. 31.
- 납부 방법 :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납부 등
- 문의 : 교통행정과 (240-4572)

<유료광고> **밀반찬 요리반 모집!!!**

주부님들 매일 반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반찬을 배워보세요~^^

- 개강일 : 11월 14일 (월) (수시 모집)
- ※ 수업시간은 월~목요일 오전 10시
- 모집인원 : 최대 20명 (선착순)
- 수업내용 : 장아찌류, 찜류, 탕류, 냉채류, 생채류, 찜계류, 조림류, 김치류, 볶음류, 전골류 등
- 수업료 : 10만 원 (총 10회)

**재직자 한식조리사반 모집**

- 모집대상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누구나
- 모집기간 : 수시 모집
- ★ 최고의 합격률로 보답하겠습니다 ★
- 자세한 문의는 학원으로 전화주세요 ~^^~

**서구 음식나라 조리학원**  
☎ 231-6100 (도시철도 자갈치역 2번 출구)

<유료광고> **부산작명소**

작명개명 전문·아기이름 전문·상호아호 전문

이름감정무료 · 개명상담무료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생각하기, 좋은 희망 갖기

작명전문가/소장 정정해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일본국 대동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졸업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 구 한일은행 근무
- 여산명리학회 학술위원
- 한국작명가협회 정회원
- 현 부산작명소 소장

좋은이름 평생행복

괴정역 5번 출구 부산은행 6층 051-203-8836

<유료광고> **자동차정비/판금/도장**

자동차분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학교

자동차 [국기훈련] 분야 전국 최초 11개월 연속 A기관

>> 국비생 특전 <<

- 교육비,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전액무료
- 자동차 보수도장 (전국 최초)
- 자동차 차체 수리 (부산 최초)
- 9개월 과정 필기면제 차체 검정

(주) 불스원 MOU 체결 부산자동차직업학교 ※ 매일 장학금 지원합니다

▶ 훈련대상 : 15세 이상 실업자 남녀 누구나 <

모집분야	교육내용	출석률 80% 이상	모집기한
자동차정비 (판금/도장)	- 자격증 - 현장실무	월수당 316,000원 ~ 416,000원 지급	선착순 마감

※ 재직자·계좌제·자비생 수시모집 ※

**부산자동차직업학교**

- 찾아오는길 : 부산대학병원 (토성역 5번)
- 인터넷접수 : www.nacar.co.kr ☎ 051) 255-3533